



GETI, 싱가포르 교육사업 주도

인천, 2015.04.13 – UNISDR 는 개발도상국 특히 기후변화에 직면해있는 군소도서개발국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에 싱가포르와 협력할 것이다.

인천에 있는 UNISDR's GETI 는 이번 방재능력개발계획에 선도역할을 할 것이다.

싱가포르와 UNISDR 은 2015 년 10 월 싱가포르에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이다. 이는 센다이 재해경감 프레임워크의 결과물을 실행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을 돕게 될 것이다.

싱가포르와 UNISDR 및 GETI 의 전문가들조기경보시스템 구축, 경제적 위험분석을 통한 재해취약성 평가, 재난평가, 비상사태대비계획 수립, 공중보건시스템 복원, 기후변화 적응 및 저감대책, 도시방재계획 등에서 전문지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.

싱가포르 외교법무부장관 Mr. K. Shanmugam : “싱가פור은 군소도서국으로 자연 및 인위적 재난 위협에 취약합니다. 우리의 접근은 장기적 안목으로 재해경감대책을 국가개발 계획 및 정책과 통합하여 고려하려는 것입니다. 우리는 우리 우방국, 특히 우리와 같은 군소도서국들이 이 분야에서의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.”

UNISDR 대표 마가레타 월스트롬 : “이번 UNISDR 과 싱가포르간의 파트너십은 포스트-2015 재해경감 프레임워크의 실천으로 최빈개발국 및 군소도서 개발 도상국을 돕게 될 것입니다.

UNISDR 은 73 개국으로부터 지난 4 년간 재해경감분야 1,800 명의 공무원을 교육훈련해온 인천 GETI 의 경험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.”

본교육과정은 특히 사이클론에 취약한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의 필요사항을 다루게될 것이다. 싱가포르 또한 2015년 팜사이클론이후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바누아투공화국에 5만달러를 제공할 것이다.

이 교육과정은 싱가포르가 170여개국으로 기술지원을 확대해온 주요 시스템인 싱가포르협력계획 하에 실행될 것이다. 이는 싱가포르가 2014.09.01~09.04 제 3차 사모아 군소도서개발도상국 국제회의에서 밝혔던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을 위한 정교한 기술지원패키지에 추가될 것으로 재난관리, 지속가능발전, 전통적 방법이 아닌 안전대책에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할 것이다.